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6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 24.(목) 1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6. 24.(목)	담당부서	산업부 투자정책과 산업부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강장진 과장(044-203-4070) 이승헌 과장(044-203-4080)	담 당 자	주현수 사무관(044-203-4071) 허제승 사무관(044-203-4089)

케이(K)-뉴딜, 첨단소부장 등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외투정책 마련

- 6.24 외투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합동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6.24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1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주재하여,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이하 외투전략)』을 심의·의결함

* (회의개요) 6.24(목) 16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교육부·고용부·중기부·외교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충남·충북·경남 등 지자체, 코트라 등

○ 동 외투전략을 마련한 배경은, 그간의 외투정책이 **6년 연속 200억불대 투자유치(신고기준), 수출·고용** 등 최적(量的)으로 **우리경제에 기여**하였으나,

* 외투기업은 국내법인의 2.2%에 해당하나, 매출(10.8%)·고용(5.6%)·수출(18.6%) 등 기여('19년)

○ 최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에 대한 **공급망 경쟁의 심화** 및 케이(**K**)**-뉴딜**·**첨단소부장** 등 대형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외투정책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질적(**質的**)으로도 우리 산업·경제를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있음

○ 특히, 코로나19,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GVC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한국이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 방역 역량** 등으로 **유망 투자처**로 주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금번 외투전략 마련은 의미가 있음

□ 금번 외투전략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케이(**K**)**-뉴딜, 첨단소부장, 백신** 등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하여,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184개 핵심 유치품목**을 타겟팅(유치 필요성 기준, 1·2·3순위로 분류)하고, 동 품목의 **유망 국제적 기업** 발굴(유치 가능성 기준으로 상·중·하로 분류)

· 금년도는 유치 필요성과 유치 가능성이 모두 높은 **100대 기업**(유치 필요성 1 + 유치 가능성 상 : 그룹 A)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

· 내년부터는 그룹 B (유치 필요성 1 + 유치 가능성 중 또는 유치 필요성 2 + 유치 가능성 상), 그룹 C (나머지 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유치노력 확대

- 코로나 19의 성공적 방역 및 케이(K)-뉴딜, 소부장 정책의 **투자기회를 적극 홍보**하면서, 유치대상 기업의 특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업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

· **분야별 IR, 국가별 IR, 1:1** 방식의 실무급/고위급 면담, 산업부-관계부처(과기부 등) **공동 투자 유치** 등

○ 둘째, **지자체의 외투 유치활동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첨단투자지구** 및 **연구개발(R&D) 지원제도** 등도 적극 활용

○ 셋째, **외투유치 기반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양성**과 아울러, **외투기업 애로해소 체계 등도 개선**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이번 외투전략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과거 5년('16~'20)대비 향후 5년('21~'25) 연평균 외투유치 증가율 4.7%,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고용계수를 활용하여 추정

□ 이날 외투위원회에서는 **충남과 충북**이 신청한 **아산 탕정 단지, 음성 성본 단지**를 심의하여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였음

○ 아울러,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공포('20.12월)에 따라, **유턴기업이 비수도권의 외투지역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도 의결하였음

□ 문승욱 장관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세계적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적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외국인투자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에 있어서 외투(**外投**)**는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므로 **외투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미국의 경우도 반도체 공급망 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를 추진·실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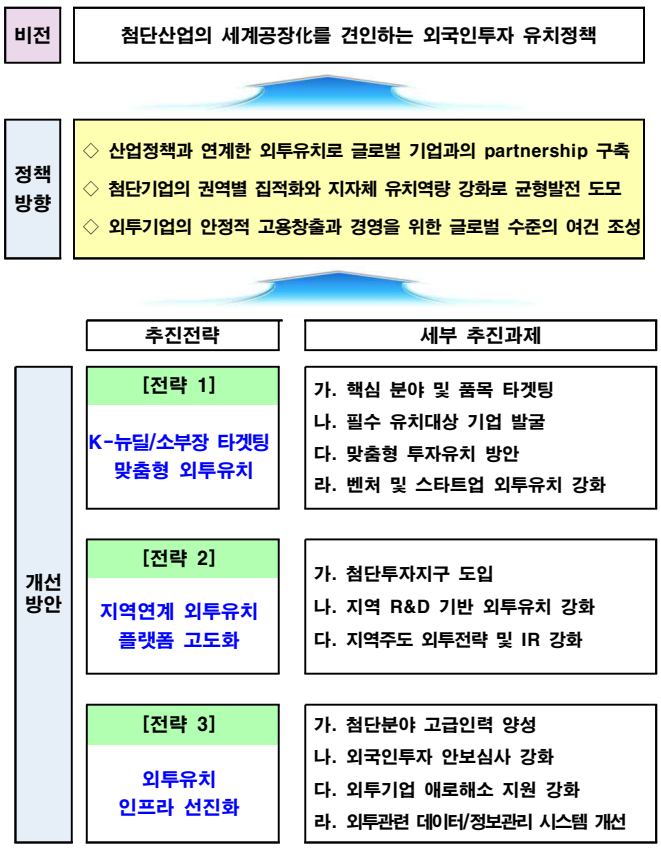
○ 또한, 외투정책을 케이(**K**)**-뉴딜, 첨단소부장** 등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백신확보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그리고, 최근 **미국·유럽**을 방문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인**하였는 바, 금번에 발표한 외투전략을 계기로 우리의 **외투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기술고도화, 청년고용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하였음

<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세부내용 >

1.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2. 전략별 추진과제

1 K-뉴딜, 첨단소부장 타겟팅 맞춤형 외투유치

□ **(핵심분야 및 품목 타겟팅)** 최근 강화되는 **밸류체인 변화와 산업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중점 유치분야·품목**을 선정

○ **K-뉴딜, 소부장, 백신 및 원부자재** 등 첨단품목 중 국내 생산중이거나 R&D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36대 분야 184개 품목"**을 도출

○ 이를 **국내 산업에서의 중요도, 해외의존도, 기술격차** 등을 기준으로(투자유치 '**필요성***') 전문가 정성분석을 추가하여, 1·2·3그룹으로 **우선순위** 부여

* ①밸류체인상 중요도, ②해외의존도, ③기술격차, ④정책부합성, ⑤글로벌 시장성장성

□ **(필수 유치대상 기업 발굴)** 중점 유치 품목을 생산하는 유망 글로벌 기업 중 **우리나라에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발굴**

○ 타겟팅 품목별로 KITIA, KOTRA 등 투자유치 기관이 보유한 기업 리스트 등을 통해 투자유치 후보기업 **1차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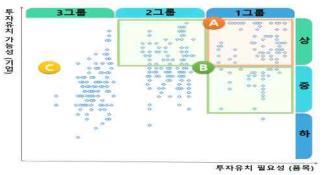
○ 동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산업기반 국내 진출 현황, 제품 경쟁력** 등(투자유치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기업을 **도출한 후, 이를 다시 상·중·하**로 분류

* ①국내시장규모 및 성장성, ②국내산업기반, ③기업 및 제품경쟁력, ④한국시장과의 관련성

※ '21.하반기 이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최종적으로, **투자유치 필요성(품목)과 가능성(기업)에 따라 그룹 A, B, C 분류**

○ 올해는 **그룹 A(100개 기업)에 속하는 기업유치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되, 내년부터는 그룹B, 그룹C의 기업에 대해서도 유치노력 확대



○ **그룹 A (최우선타겟)**

(가능성 上, 필요성 1)

○ **그룹 B (우선 타겟)**

(가능성 上, 필요성 2 / 가능성 中, 필요성 1)

○ **그룹 C**

□ **(맞춤형 외투유치 활동 전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성공적 방역**과 **K-뉴딜, 소부장 등 투자기회**를 **적극 홍보하면서**

○ **개별기업의 상황·특성, 한국과의 사업관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

○ **(분야별)** 불특정 **다수의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IR 행사** 등을 통해 우리기업·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홍보**

< 분야별 주요 IR 행사계획(안) >

분 야	지 역	시 기	개최 방식*
(경기) 반도체, 전자부품 등	나고야	8월	온라인
소부장 Initiative	전세계	9월중	온라인
(대구FEZ) 스타트업	함부르크	9월	온라인
(IKW) 소부장 등	전세계	11월	온라인

*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오프라인 IR 추진 검토

○ **(국가별)** EU, 미국, 중화권 등 주요 對韓 투자국을 대상으로 국가 IR을 개최하여 **바이오, 소부장** 등 중점 유치 분야 관련 투자유치활동 전개

국가 / 개최시기(잠정)	타깃 분야	타깃기업
EU·미국/ 9월	바이오·헬스케어	P사, R사, B사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10개사
싱가포르·홍콩 등 중화권 / 11월	언택트 산업분야	T사, A사 등 이커머스, 콘텐츠, DNA 기업 10개사
EU·미국·일본 / 12월	소재·부품·장비	D사, B사, S사, C사 등 반도체·DP, 화학소재, 2차전지, 기계·로봇, 미래차 기업 10개사

* 현재로서는 온라인 IR을 계획중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IR 추진 검토

○ **(1:1 등 심층적 접근)** **유치가능성**이 높거나,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분야·기업은 **1:1 방식으로 실무급·고위급 심층 면담 추진**

○ **(산업부-관계부처 공동 투자유치 활동 전개)**'비대면 ICT 기업 설명회(과기부)'등 **개별적으로 IR을 진행중인 부처와 협력**하여 **범부처 공동 투자유치활동 추진** 검토

* 예) '21.4분기 디지털 뉴딜 ICT 분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부-과기부 합동 IR 추진 등

○ **(글로벌 대형이벤트 연계) 차세대 무선통신, 스마트헬스케어** 등 글로벌 대형행사가 정착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 예) MWC(모바일, '21.6-7월), Bio Digital USA(바이오, '22.6월) 등

- **K-뉴딜, 소부장**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국제 대형 이벤트**를 발굴, **파일럿 프로젝트**로 추진

□ **(벤처 및 스타트업 외투유치 강화)**

○ 비대면 경제활성화,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중요성 증대**

○ **K-뉴딜, 소부장 분야**의 국내 벤처기업 투자 **전용 신규펀드 시범 조성** 및 동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 VC와 공동 IR 추진 등 검토**

2 지역연계 외투유치 플랫폼 고도화

□ **(첨단투자지구 활용)**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旣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 **첨단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근거법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6.15)되었고,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임

○ 첨단투자지구를 통해 **지역의 첨단분야 투자유치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R&D 활용 지역의 외투유치 강화)**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를 **전제**로 국내기업과의 **소부장 상용화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외투연계 국제공동 R&D**』를 **신설**할 계획임

○ 현재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요건으로 R&D를 추진하고 있는 바(글로벌 수요연계형 R&D), **외국인투자를 확보한 기업으로도 확대**하여 외투와 R&D의 연계 강화 추진

○ 외투기업의 R&D 센터**를 대학내 또는 지방의 산단 등에 유치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 **(지역주도 외투전략 및 IR 강화)** 정부·지자체 경자청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부~지자체간 협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 아울러, **코트라 등이 지자체의 IR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기업모집, 프로그램 구성 등 지원), **외국인투자주간**에서 **지자체 홍보세션 신설, 지역홍보관 확대** 등을 추진

○ 지역을 순회하며 애로사항 해소,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외국인투자 카라반'**의 경우, 그간 중앙정부 중심이었으나 **향후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1:1 심층상담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애로해소를 지원할 예정

*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카라반 활동에 다소 제약이 있었는 바, 하반기 코로나 여건이 개선 되는대로 지역별로 재개 예정임

○ 또한,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과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 사업**을 **우대**하고, **포상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3 외투유치 인프라 선진화

□ **(외투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첨단분야 지식과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외투기업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인력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 내에 **외투기업의 인력 및 교육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과정(초·중·고급)을 마련하고,

* 부처합동(교육부 주관)으로 유망 신산업별 컨소시엄 구성(대학+업계 등), ①교육과정 개발, ②자원 공동활용, ③컨텐츠 공유 등 추진('21년, 832억원)

○ 외투기업의 **특수성**(업무방식, 어학 등)을 고려한 『**외투전용 일학습병행 사업***(고용부)』을 **개발**하여**, 훈련비용**과 **공동훈련센터 활용** 등을 **지원**하고**,** 특히 **고용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시 **우대**할 계획임

* 기존 일학습병행 대비, 연간 교육시간 및 사업장 내 최소 훈련시간 등 요건완화 (ex. 年 훈련시간 및 OJT 시간 : (일반) 200h 이상 / 1일 6h → (외투) 제한없음)

□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강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투자**를 통한 **국가안보위협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 **핵심기술 유출예방**과 **첨단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외투 안보심사를 강화할 계획**임

□ **(외투기업 애로해소 지원 강화)** 최근 외투기업의 애로가 심층검토가 필요한 **환경·인증** 관련 **애로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현행 1실에서 1실 2팀으로 개편**하고, 전문위원 등 **인력증원도 추진**할 계획임

* (고층분야 변화추이) ('13~'16년) 인센티브(20.6%) 비자출입국(14.2%), 조세·세무(14.2%) → ('17~'20년) 기준·인증(15.7%), 환경(15.6%), 비자출입국(13.0%)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주현수 사무관(☎ 044-203-4071), 허제승 사무관(044-203-40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